



KOMSCO

# 화폐박물관 제 2 전시실

Currency Museum  
2nd exhibition room



# 목차

## contents

---

제 2 전시실 지폐역사관	3
1. 지폐의 역사	4
2. 일본 제일은행권	7
3. 광복 전 조선은행권	10
4. 광복 후 조선은행권	15
5. 구 한국은행권	19
6. 한국은행권	24
7. 지폐와 우리문화	29
8. 은행권은 어떻게 만들까?	33
9. 요판인쇄기	34
10. 북한의 지폐	35
11. 세계의 지폐이야기	36
12. 은행권용지는 어떻게 만들까?	37
13. 은행권용지	38
14. 초지기	41

제 2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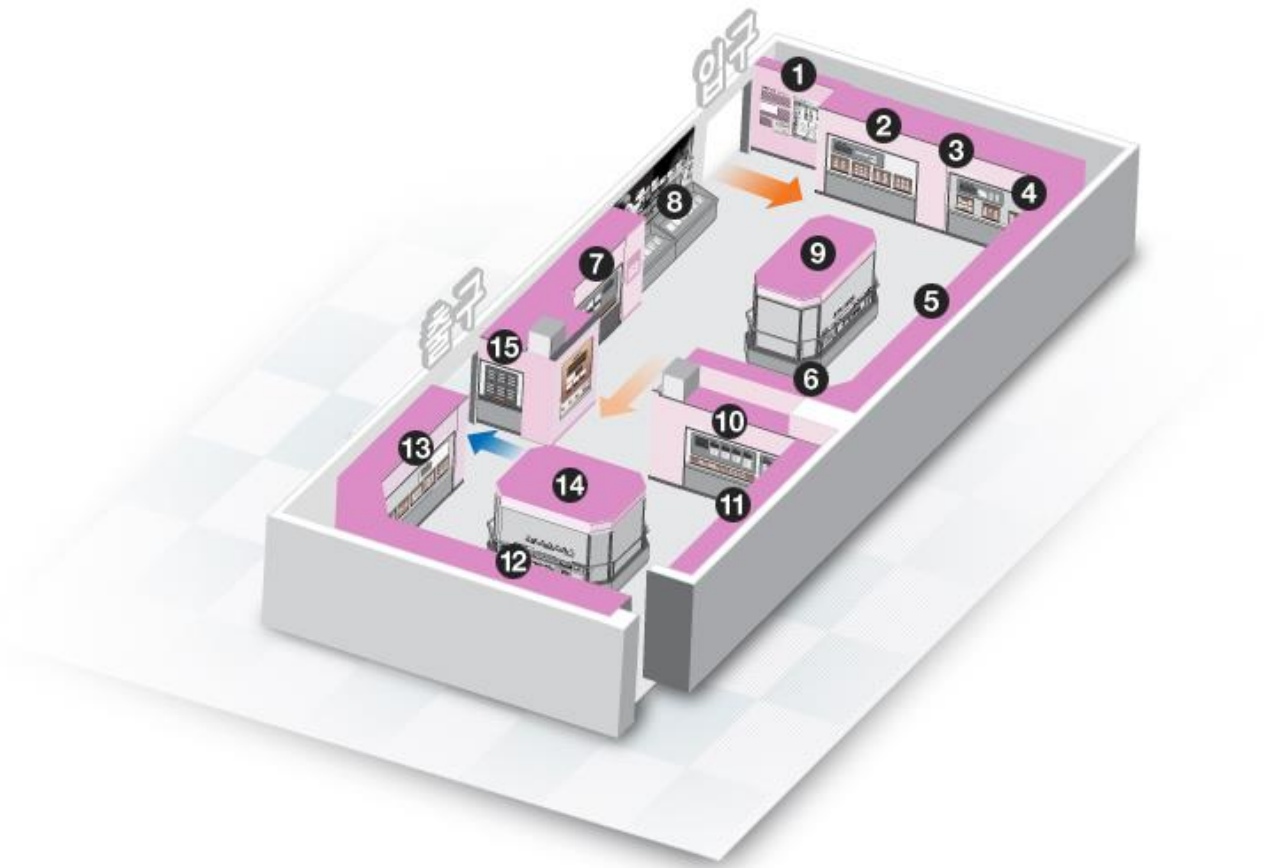
# 지폐역사관

Banknote Gallery

# 제 2 전시실 지폐역사관

1902년 발행된 일본 제일은행권부터 조선은행권, 구 한국은행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행권까지 우리나라 은행권의 변천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한국조폐공사에서 면을 원료로 자체 제조하는 은행권 용지의 제조과정, 은화(Watermark)제조 원리와 은행권의 인쇄과정이 모형과 멀티비전으로 전시되어있다.

또한, 북한지폐와 희귀지폐, 외국지폐의 디자인 소재별 전시로 각 나라의 문화를 비교해 볼 수 있다.



- |               |                     |           |
|---------------|---------------------|-----------|
| 1. 지폐의 역사     | 7. 지폐와 우리문화         | 13. 은행권용지 |
| 2. 일본 제일은행권   | 8. 은행권은 어떻게 만들까?    | 14. 초지기   |
| 3. 광복 전 조선은행권 | 9. 요판인쇄기            | 15. 희귀지폐  |
| 4. 광복 후 조선은행권 | 10. 북한의 지폐          |           |
| 5. 구 한국은행권    | 11. 세계의 지폐이야기       |           |
| 6. 한국은행권      | 12. 은행권용지는 어떻게 만들까? |           |

# 1. 지폐의 역사

## 지폐의 역사

지폐가 세계 최초로 사용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00여 년 전인 997년 중국 북송시대 지금의 사천에서 발행된 예탁증서 형태인 '교자'라는 사찰이다. 상인들 사이에서 사용되다가 일반인에게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며 1023년에는 관영 '교자발행소'가 설립되어 유통되었다. 정부가 지폐를 공식 발행한 것은 1170년 남송시대의 중국 조정이 처음이며, 몽고 황제 쿠빌라이 칸에 의해 대량으로 발행되었다. 몽고 즉 원시대(1271-1368)에서는 전제 정치하에 금, 은, 동 모두를 정부가 강제로 보관하고 그 보증으로 지폐를 발행하여 통용시킴으로써 지폐의 유통이 활발하였다.

### 13세기 중국 원나라 때 발행된 '지원통행보초'



(크기:가로202X세로283mm)

## 서양의 지폐의 기원

유럽에서는 17세기 초 중세 영국에서 처음으로 지폐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금장(金匠)이 발행한 예치증서(Goldsmith Note)로서 오늘날 은행권의 모체가 되었다. 상업의 발달로 여행자가 많았는데 여행 중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금융 업무를 수행하던 금장에게 돈을 맡기고 예치증서를 받은 뒤 이를 목적지의 지정된 금장에게 가서 보여주고 돈으로 교환 받았다고 한다.

1644년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은행에서 손으로 그려진 은행권을 발행 통용하였다. 1716년 프랑스는 당시 재상인 존로의 제안으로 재정 재건을 위하여 은행권을 발행하였으며, 가장 유명한 지폐는 1789년 프랑스혁명 때 임시정부가 성립된 직후 귀족이나 사원의 토지를 담보로 발행한 아시냐 지폐였다.

### 서양의 지폐



## 스웨덴 스톡홀름 은행의 199달러 지폐 (1666)

이 지폐는 은화로 가치를 정했고, 은행 설립자 요한 팔름스트루크의 서명이 왼쪽 중앙에 있다.

# 영국은행의 635파운드 지폐 (1699)

은행 예치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발행했는데 고객은 그 중 일부분을 찾아가고 나머지 잔액을 남겨둘 수 있었다.



# 우리나라 최초의 종이돈 - 저화

저나무 껍질로 만든 지폐로서 조선시대 법전인 대전통편 호조 편에 저화의 가치를 서술한 기록이 남아있으나 실물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초기 저화는 중국의 '대명통행보초' 보다 더 커서 불편이 따라 1474년 중국의 저화처럼 작게 만들었다고 한다.

## 중국의 '대명통행보초'



(크기:가로220 X 세로338mm)



## 2. 일본 제일은행권

고종 13년(1876), 일본과의 병자수호조약에 따라 인천, 부산, 원산항 개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해관(海關) 업무를 취급하여오던 일본 제일은행은 1901년 해관세를 지당하는 댓가로 은행권 발행권을 획득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자 같은해 10월 무역촉진과 해관세 출납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본 대장성에 발행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일본정부는 제일은행에 은행권 발행을 허가하는 특별규정을 제정하였다. 광무 6년(1902). 제일은행은 일원권, 오원권, 십원권을 발행하였으며 1904년 일원권, 오원권, 십원권등 구권 3권종을 1908년에는 신권 3권종 등 모두 12권종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



일원권 1902



오원권 1902



십원권 1902



일원권 1904



오원권 1904



십원권 1904

### 제일은행권의 구권발행과 유통

제일은행권이 발행되자 일부지역에서는 그 미려함과 유통 편의성이 인정되어 그 유통량이 증가되었으나 우리나라 정부요인이나 재야 지식인들은 이 은행이 일본의 조선에 대한 화폐 침략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제일은행권 유통배척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개항과 함께 진출한 일본 은행과 일본 화폐의 국내 유통으로 인하여 당시 우리나라 화폐질서는 동요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개항에 따른 제 행정비의 가중으로 인한 재정난과 그에 따른 화폐납발은 조선 화폐 제도를 더욱 문란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또한 근대적 화폐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확립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소액은행권 발행

일본 대장성은 군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액은행권의 발행을 제일은행에 지시하였고 동 지시에 따라 군대에 대한 일본은행, 태환권 인환용(兌換券 引換用)으로 오십전, 이십전, 십전의 소액은행권을 1904년 6월부터 발행하였다. 이 소액은행권은 봉황과 용이 주소재로 들어가 있으며, 모조지를 사용하여 첩판(凸版) 인쇄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 제일은행이 러·일 전쟁때 군용화폐로 발행한 오십전, 이십전, 십전의 소액은행권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금속 보조 화폐와 함께 유통 되었으나, 1911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는 "고시 제8호"로 일원 미만의 은행권 발행을 금지하고 이미 발행되었던 소액은행권은 1912년 3월 31일자로 그 유통을 금지 하였다.



십전권 1904. 6



이십전권 1904. 6



오십전권 1904. 6



오원권(미발행)

## 제일은행권 신권발행과 특성

일본제일은행은 1902년 및 1904년에 발행한 은행권의 주소재인 제일은행장 초상을 변경하고 새로운 소재를 담은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신권을 보면 1908년 8월 1일 발행된 일원권은 화홍문(華虹門)이, 이듬해 1월 1일 발행된 십원권은 주합루(宙合樓)가, 이어 7월 1일 발행된 오원권은 광화문이 주소재로 사용되었다. 이들 일본 제일은행권은 요판 인쇄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구권은 대장성인쇄국에서, 신권은 내각인쇄국에서 제조되었다. 구권은 각 권종 모두 종이에 "제일은행"의 은서(빛에 비추어 나타나는 숨은 글자)를 넣어 제조하였고, 신권의 경우 십원권은 태극장(太極章)과 벚꽃, 오원권은 국화, 당초(唐草)와 이화장(李花章), 일원권은 태극장과 이화장이 은화(빛에 비추어 나타나는 숨은 그림)로 들어갔다.



일원권 1908. 8



오원권 1909. 7



십원권 1909. 1

## (구)한국은행권의 발행

융희 3년(1909) 6월 한·일 정부간에 제일은행권의 권리 의무 계승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중앙은행이 발족되면서 우리나라 법화인 한국은행권을 독점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한국은행권 제조를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 발주하였다. 제일 은행권의 원판(原版)을 일부 수정하여 전용한 것으로서 명칭, 행장, 근거 등에 약간 변경을 가한 「구한국 은행권」은 1910년 12월 일원권과 이듬해 8월 오원권, 십원권 등 3 권종이 발행되었다.



일원권 1910. 12. 21



오원권 1911. 8. 1



십원권 1911. 8. 1

### 3. 광복 전 조선은행권

1911년 3월 조선은행법이 공포되어 그해 8월 15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 한국은행은 조선은행으로 개칭되었다. 당시 은행권의 발행준비가 불충분하여 편의적으로 일본제일은행권 및 (구)한국은행권을 조선은행권으로 간주 유통시키고 은행권의 제조를 일본의 내각 인쇄국에 발주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자 조선 총독부 인쇄국에 은행권제조를 의뢰하여 1914년 9월 1일 비로소 "조선은행" 기명의 100원권이 발행되었다.

이처럼 저액권보다 먼저 고액권이 발행된 것은 일원, 오원, 십원의 경우 (구)한국은행권 및 일본 제일은행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며, 또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백원권이 발행된 이듬해인 1915년 1월 4일 일원권이 발행되고 같은 해 11월 1일에는 오원권 및 십원권이 각각 발행됨으로서 (구)한국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의 회수를 촉진하게 되었다.



일원권 1915. 1. 4



오원권 1915. 11. 1



십원권 1915. 11. 1



백원권 1914. 9. 1

#### 조선은행권의 특징

당초 조선은행권은 주로 조선총독부 직영의 공장에서 제조되었으나, 일부는 대장성 인쇄국에서 일본은행권과 같이 제조된 것도 있어 신양식의 4권종에는 조선총독부 제조의 것과 일본 내각인쇄국 제조의 것이 있다. 표면 하부에 전자는 "조선총독부인쇄" 후자는 "대일본 제국 정부 내각 인쇄국 제조"라는 명판을 넣었고 기호의 괄호 모양도 조선총독부는 〈〉 일본 내각인쇄국은 {} 로 표시하였으며 "아라비아"숫자 자형도 상이하였다. 그리고 각은행권의 도안을 보면 백원권에는 대흑천상(大黑天像)으로 이는 일본은행 최초의 구 백원권에 있었던 것이며 다른 권종에는 나이 많은 노인상을 공통적으로 게재하고 있었다.

100원권에 있는 대흑천상은 본래 불교에서 삼보(불·법·승)를 옹호하고 먹을 것을 너덕하게 한다는 신으로서 뒤에는 복의 신으로 부역에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노인은 조선말기의 인물로서 운양 김윤식(1835~1922)의 초상으로 1874년 문과에 급제 하여 외무대신, 대제학을 거쳐 3·1운동 이후에는 독립운동에도 가담하는 등 구한말의 이름높은 석학이자 문장가로서 87세까지 장수하였으며 저서로는 「운양집(雲養集)」, 「천진담초(天津談草)」, 「음청사(陰晴史)」 등이 있다.

## 조선은행권의 신은행권발행

1932년 1월 4일 조선은행은 일본 내각인쇄국이 제조한 개(改) 일원권을 발행하였다. 이어 그해 6월 1일에는 개(改) 십원권이 발행되었는데 표면에는 중앙의 이화(李花)와 무궁화가 겹쳐서 인쇄되었으며, 개(改) 일원권에서 삭제되었던 조선은행의 휘장이 다시 부활되었다. 또한 1932년 9월 일본이 만주사변을 도발시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후 1935년 6월 1일 개(改) 오원권이 발행되었다. 이것은 일본내각인쇄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앞면에는 발행근거를 삭제하고 뒷면은 조선은행 휘장을 삽입하였으며 지불문언이 없어져 간소화 되었다. 1937년에 들어와서는 전쟁 징후가 더욱 농후해졌고 또한 중일전쟁을 계기로 전쟁 물자기 동원됨에 따라 인쇄지를 비롯한 은행권 인쇄재료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1938년 12월 1일에 발행한 개(改) 백원권도 품질이 뒤떨어진 조잡한 은행권이 되었다.



개(改) 일원권 1932. 1. 4



개(改) 십원권 1932. 6. 1



개(改) 오원권 1935. 6. 1



개(改) 백원권 1938. 12. 1



## 전시 금융체제와 조선은행권 증발

전시체제에서의 조선은행권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물자의 부족으로 인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인쇄를 간소화하고 또 저급화하였기 때문에 그 품질이 떨어져 조잡한 은행권이 발행되었다. 1944년 2월 1일에는 갑(甲) 십원권과 갑(甲) 오원권, 10월 15일에는 개(改) 일원권(무번호권(無番號券)), 11월 1일에는 갑(甲) 백원권, 11월 15일에는 갑(甲) 십원권(무번호권(無番號券))이 발행되어 한해동안에 5권종이 신규발행되었다.

당시 발행된 조선은행권 갑권(甲券)과 중일전쟁 이전에 발행된 개 1, 5, 10원권 및 중일전쟁 직후에 발행된 개(改) 백원권을 비교하여 보면 조선은행권 갑권은 뒷면인쇄를 요판(凹版)인쇄에서 첩판(凸版)인쇄로 대체하고 인쇄도수(度數)도 1도씩 줄였으며, 은행권의 크기 및 주소재 등이 개권(改券)과 별로 달라진 점이 없이 종래의 은행권 앞면에 기재된 교환문구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5년 2월 15일 발행한 갑(甲) 오원권(무번호권)은 전시금융체제 하에서의 마지막 은행권이 되었다.



갑(甲) 십원권 1944. 2. 1



갑(甲) 오원권 1944. 2. 1



갑(甲) 일원권(무번호)  
1944. 10. 15



갑(甲) 백원권 1944. 11. 1



갑(甲) 십원권(무번호)  
1944. 11. 15



갑(甲) 오원권(무번호)  
1945. 2. 15

## 조선은행권의 현지제조계획

1944년 말까지 조선은행권은 대부분 일본 대장성인쇄국에서 제조되었으나 전세(戰勢) 악화로 일본의 해상보급로가 차단되어 물자수송이 어려워짐에 따라 은행권 제조 공급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현지 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조선은행은 긴박한 전쟁으로 많은 예금 인출과 전비조달을 위한 은행권 증발에 따른 은행권 비축이 시급하였는데 당시 대장성 인쇄국에서는 제조능력의 한계점에 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제조계획이 착수되어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서 모조지를 사용하여 갑(甲) 천원권 70억원을 제조하였다. 그러나 갑(甲) 천원권은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하여 결국 발행되지 못하였다.



갑(甲) 천원권(미발행)

## 조선은행권 발행과 유통

조선은행권은 전시경제 체제가 계속됨에 따라 점차 은행권 발행이 증가되었으며 특히 1941년 발권제도가 최고 발행액 제한제도로 변경된 이후 급등하여 1945년 8월 14일에는 중일(中日)전쟁 발발 직후인 1937년보다 약 17배 증가한 48억 4천만원에 달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이후 조선은행의 중국진출로 인한 영업지역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밖에서의 발행액이 점차 증가하여 1937년 말 조선은행권 발행액의 31%를 점유하였다. 1945년 말에는 40%에 달해 조선은행권이 중국지역에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종전이 임박하여서는 전비 조달을 위한 통화 증발로 화폐유통액이 1944년 말에는 31억 4천만원에 달하였고 종전 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하여 1945년 말에는 87억 6천만원에 이르렀다.

# 소액지급어음

조선은행권의 소액지급어음 발행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만주에서 보조화폐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하여 조선은행은 1915년 8월 21일 만주에 있어서의 소액 지급어음 발행에 관한 청원서를 조선 총독부에 제출, 1916년 6월 12일자로 발행허가를 받아 1916년 6월 12일 이후 만주지점에서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일본 보조화폐 대용으로 쓰게 하였는데 같은 해 9월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조화폐의 부족현상이 있어 일시적으로 지급어음을 발행하였다.



오십전권 1916. 6. 12



이십전권 1916. 6. 12



십전권 1916. 6. 12



신(新) 오십전권 1919. 10. 20



신(新) 이십전권 1920. 1. 1



신(新) 십전권 1919. 5. 1



오십전권 1937. 8. 18



십전권 1937. 8. 18

# 조선은행 소액지급어음 발행

1919년 이후에는 새로운 모양의 지급어음이 발행되었는데, 5월 1일 십전, 10월 20일 오십전, 이듬해 1월 일 이십전이 각각 발행 되었는바 이것은 당초 발행된 지급어음(1916년형)에 비하여 색상이 권종에 따라 다를 뿐 모두 같은 양식으로 조선총독부에서 인쇄하였다. 조선은행은 보조화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던 소액 지급어음의 발행을 정지하였으나 중일(中日) 전쟁의 발발(勃發)로 소액화폐가 대량 필요하여지고 조선 은행권이 군용화폐로 지정됨에 따라 종래의 것과는 양식을 달리하여 오십전권과 십전권을 1937년 8월 18일에 발행하였는데 이는 일본이 중국침략을 하기 위하여 발행하였던 것이다.



## 4. 광복 후 조선은행권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終轉)은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으나, 곧 외세에 의하여 남과 북으로 국토의 분단을 가져왔다. 1945년8월15일 부터 1948년8월15일 정부수립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는 군정 및 과도 정부를 통하여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일본 경제와의 급격한 단절, 국토의 양단으로 인한 생산시설 및 지하자원의 북한 편중 등으로 말미암은 생산 위축과 산업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해방 직후부터 일본인에 의한 고의적 화폐 남발 및 적자재정 등으로 인하여 누적되기 시작한 악성 인플레이션 등이 한국 경제의 재건과 발전을 암담하게 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생산위축과 해외 귀환 동포의 격증 등으로 유발된 실업자의 증가, 사상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등이 중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 해방직후의 한국경제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그 재건과 발전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 광복 후 처음 발행된 은행권의 종류

1945년 해방 후에도 군정법령에 의하여 조선은행법이 존속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선은행권도 계속 유통되었다. 조선은행권은 해방후의 급격한 통화 팽창으로 중심권종이 저액권으로부터 100원권으로 곧 이행되었으며,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된 은행권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8월에 을(乙) 100원권이 최초로 발행되었고, 뒤이어 10월20일에는 을(乙) 1원권, 12월10일에는 병(丙)100원권과 을(乙) 10원권이 각각 발행되어 그 후 모든 은행권 인쇄는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가 전담하였다.



을(乙) 백원권 1945. 8. 15



을(乙) 일원권 1945. 10. 20



병(乙) 백원권 1945. 12. 10



을(乙) 십원권 1945. 12. 10

---

## 광복 후 발행 은행권의 내력

내각인쇄국에서 인쇄하던 조선은행권은 제2차 세계대전 등으로 일본에서 제조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광복 직전부터는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에서 인쇄되었다. 조선은행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100원권 21억원, 1,000원권 70억원 합계 91억원을 조선서적인쇄 주식회사에서 인쇄하였는데, 제조된 은행권은 "옴셋" 인쇄로서 전쟁말기의 물자부족사태로 인하여 지폐전용지가 사용되지 못하고 서울시내에서 구입된 모조지가 사용되었다.

그런데 광복 후 일본의 전신 인출금 및 귀국비용 등으로 21억원을 100원권 만으로는 도저히 화폐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당시 일인들은 1,000원권 발행을 획책하였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폐의 증발을 우려하여 이를 강력히 반대하였으며 일인들은 해방 전 조선서적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100원권 원판을 가져다가 일본인이 경영하던 근택(近澤)인쇄소에서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약 15일간 조선은행권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은행권 을(乙) 백원권은 조선서적 인쇄주식회사와 근택인쇄소에서 제조된 것으로서 광복과 더불어 발행된 것이다.

## 조선은행권의 일부 채신

1946년도에 들어서는 군정청 대상금의 방출이 본격화되고 그해 7월부터는 농산물 공출제도의 부활에 따른 양곡수매자금의 방출 등으로 7월말 화폐발행고는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더욱이 공공요금의 대폭적 인상 등으로 화폐는 계속 증가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해 5월6일 병(丙) 십원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행한 조선은행권은 일제시대의 도안 그대로 인쇄된 것이므로 은행권에서의 일본색 제거를 목적으로 종래 일본정부 휘장인 오동문장을 무궁화로 도안을 변경하여 7월1일 정(丁) 백원권, 10월10일에는 정(丁) 십원권을 발행하였으며, 이듬해인 1947년6월3일에는 무(戊) 백원권을 발행함으로써 은행권의 일부 채신을 가져왔다.



병(丙) 십원권 1946. 5. 6



정(丁) 백원권 1946. 7. 1



정(丁) 십원권 1946. 10. 10



무(戊) 백원권 1947. 6. 3

## 정판사 위폐사건

근택인쇄소에서 조선은행권을 인쇄하던 일본인들이 철수 당시 은행권 인쇄판의 관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당시 평판과장으로 있던 김모씨가 보관 중이던 100원권 징크판으로 조선 공산당이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1945년 10월 하순부터 1946년 2월 상순까지 6차에 걸쳐 1,200만원의 위조지폐를 남발하였다. 이것이 당시 사회를 시끄럽게 하였던 소위 정판사 위폐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미 군정청은 남한 내에서의 공산당의 활동을 불법화하였다.

## 정부수립 후 조선은행권

1948년 정부수립 후부터 1950년 6.25전쟁 직전까지 발행된 화폐는 군정 및 과정기(過政期)에 발행된 것 이외에 조선은행권과 조선은행권 소액은행권만이 새로운 도안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즉 1949년9월1일에는 신(新) 십원권 15일에는 같은 모양의 신(新) 오원권이 발행되었고, 이어 11월15일에는 오십전, 십전, 오전 등의 소액은행권이 발행되었다.



신(新) 십원권 1949. 9. 1



신(新) 오원권 1949. 9. 15



오전권 1949. 11. 15



십전권 1949. 11. 15



오십전권 1949. 11. 15

## 한국전쟁과 조선은행권 남발

한국전쟁이 발발(勃發)하자 한국은행은 곧 전시체제로 전환하여 정부의 남하와 더불어 지금은(地金銀) 소산과 아울러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하였다. 1950년6월28일 북한군은 한국은행 본점 건물을 점거하고 소산(疎散)하지 못한 일부 지금은(地金銀)과 미발행 조선은행권(신 천원권)을 약탈하고 불법 남발하였을 뿐 아니라 48A 기호 조선은행권(무 백원권)을 남발하여 남한경제를 교란시키는데 사용하였다.



신(新) 천원권(북한군 불법발행)

## 5. 구 한국은행권

### 제1차 통화조치와 한국은행권

6.25사변 중 공산군은 침범지역 내에서 불법 남발한 지폐를 강제 유통시킴은 물론 공작 자금으로 사용 함으로서 경제질서의 파괴를 획책하였다. 정부는 피침지역에서 불법 남발한 적성 통화(敵性 通貨)의 유통을 막고 경제 교란 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1950년8월28일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는 제1차 통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1953년1월16일 제1차 통화조치가 완결되는 기간중인 19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법의 발효와 더불어 1952년 10월 신 1,000원권과 500원권을 인쇄하게 됨으로써 조폐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은행권 인쇄를 모두 한국조폐공사가 전담하게 되었다.



백원권 1950.7.22



천원권 1950.7.22



오백원권 1952.10.10



신천원권 1952.10.10



## 제2차 긴급통화조치

전란으로 인한 막대한 전비지출과 생산활동의 위축, 통화의 대외가치 폭락으로 정상적인 무역 불균형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고 금융, 생산활동을 안정된 통화의 터전에 올려 놓기 위하여 정부는 1953년 2월 원화에서 환화로 개칭 100대 1의 평가절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미국 연방 인쇄국에서 제조된 이 은행권은 평판 인쇄된 것이었으나 광복 후 이 당시까지 발행된 어떤 은행권보다 고급종이를 사용한 뛰어난 화폐였다. 즉 형광물질을 넣어 자외선을 비추면 바탕이나 번호 색상이 바뀌며, 색사(色絲)를 넣어 위조가 어렵게 특수 제조된 것이었다.



십환권 1953. 2. 17



백환권 1953. 2. 17



천환권 1953. 2. 17



일환권 1953. 2. 17



오환권 1953. 2. 17

## 신종 환화 은행권의 발행

한국은행은 1953년 통화개혁시 미국에서 제조반입하여 발행한 은행권을 국내 제조권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1953년3월17일에 신 십환권, 같은 해 1953년12월18일 신 백환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발행초기에는 신 십환권 및 신 백환권 모두 황색 조폐지를 사용하여 발행하였으나 신 십환권은 1953년12월15일부터 신 백환권은 이듬해 2월1일부터 각각 백색 용지로 바꾸어 발행하였다.



신 십환권(황색지) 1953. 3. 17



신 백환권(황색지) 1953. 12. 18



신 십환권(백색지) 1953. 12. 15



신 백환권(백색지) 1954. 2. 1



## 환화 은행권의 체제정비

1956년 3월 새로운 액면의 은행권 발행이 이루어져 도안을 약간 변경한 오백환권을 발행하였다. 1957년 3월에는 신 천환권을 발행하므로서 소액 은행권 오환권 및 일환권을 제외하고는 미국제조 은행권을 모두 국내 제조권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1953년 2차 통화조치에 의해 환 은행권이 발행된 이후 1958년까지 발행된 신종 은행권은 9권중에 달하였으며 특이한것은 이중 오십환권 및 신 십환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을 앞면 도안으로 채택한 것이었다.



오백환권 1956. 3. 26



(외산용지) 신 천환권 1957. 3. 26



(국산용지) 신 천환권 1957. 3. 26



개 백환권 1957. 3. 26



신 오백환권 1958. 8. 15



오십환권 1958. 8. 15

## 경제질서 확립과 환화 발행

1960년 4.19혁명으로 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제반 경제현실화 정책이 실시되자 한국은행은 새로운 경제질서확립을 상징하는 뜻에서 새로운 도안의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먼저 1960년8월15일 종전 신 천환권의 도안을 세종대왕으로 변경한 개 천환권을 발행하였고 이어 1961년4월19일에는 역시 세종대왕을 도안으로 한 개 오백환권을 발행하였다.



개 천환권 1960. 8. 15



개 오백환권 1961. 4. 19



개갑 백환권 1962. 5. 16

## 경제개발 추진과 환화 발행

또한 1962년5월16일에는 개 백환권의 도안을 변경한 개갑(改甲) 백환권을 발행하였다. 개갑 백환권은 당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한 국민 저축심 양양을 위하여 저축통장을 들고 있는 모자상을 도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전후 양면 모두 한자 사용없이 순수한 한글만으로 표기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개갑 백환권은 그해 6월10일의 통화개혁으로 발행된 지 불과 24일만에 유통 금지됨으로써 한국은행권이 발행된 이래 최단기간 유통된 화폐로 기록되었다.

## 6. 한국은행권

8.15 해방 이후 혼란기의 악성 인플레이션과 냉전체제의 대결로 폭발한 6.25동란으로 굶주림과 폐허 그리고 구정권의 부정과 부패, 무능 등으로 국민경제가 도탄에 빠졌으며, 무기력과 체념이 지배하던 국민의식이 1960년대부터 점차 확산된 국민의식의 변화와 경제개발 정책이 가속화 되면서 신생 산업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더욱 번영되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 제3차 긴급통화조치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1962년 6월 화폐단위를 환으로부터 원으로 개칭하며 환가 비율을 10분의 1로 절하하는 제3차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3차 통화조치는 경제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화폐의 명목 가치를 절하하는데 그쳤으며, 화폐사적 측면에서는 현용 원화 체계의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졌다고 하겠다. 그리고 3차 통화조치에 의해 발행된 은행권은 영국 THOMAS DE LA RUE CO.에서 제조 반입하여 발행한 것으로서 오백원권, 백원권 및 오십원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판인쇄 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으로 비교적 위조가 용이하여 인쇄방법의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가오백원권 1962. 6. 10



가백원권 1962. 6. 10



가오십원권 1962. 6. 10



가십원권 1962. 6. 10



오원권 1962. 6. 10



일원권 1962. 6. 10

## 영국제조권의 국내제조권 대체

1962년 9월 2일 한국은행은 영국제조권의 국내제조권 대체를 위하여 나 십원권을 발행하였고 같은 해 11월1일에는 나 백원권을 발행하였다. 나 백원권은 종전의 백원권과 같은 규격으로 앞면 도안도 독립문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십원권은 소액거래의 중심 권종인 십원권의 품위향상을 위하여 규격을 크게 하는 한편 도안에 있어서도 앞면에 첨성대를 사용하여 한국은행 휘장외에는 뚜렷한 도안소재가 없었던 제3차 긴급통화조치로 발행한 십원권에 비하여 다양하게 하였다. 이어 1962년12월1일 소액거래에 있어서 단수(端數)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오십전권과 십전권을 발행하였는데 이로써 원화은행권의 권종체계는 8개 권종으로 정비되어 통화조치 이전의 환화은행권 7개 권종은 물론 새로운 고액권으로서 오백원권을 갖게 되었다.



나 백원권 1962. 11. 1



나 십원권 1962. 9. 21



오십전권 1962. 12. 1



십전권 1962. 12. 1



## 새로운 양식의 은행권 발행

1965년 한국조폐공사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요판(凹版)인쇄가 가능해지자 한국은행은 요판인쇄권의 발행을 추진하였는데 먼저 1965년8월14일에는 다 백원권을 발행하고 1966년8월16일에는 나 오백원권을 발행하였다. 다 백원권은 국내 제조된 최초의 요판인쇄권으로 도안의 정교화를 기하고자 앞면 도안의 소재를 독립문에서 세종대왕 초상으로 변경하였다. 인쇄방법에 있어서 다 백원권은 앞면만 요판 인쇄하였으나, 나 오백원권은 앞뒤 양면에 요판 인쇄하였다. 이어 1969년3월21일 한국은행은 오십원권의 도안을 다소 변경한 나 오십원권을 발행하였다. 나 오십원권은 소액권종임을 감안하여 평판인쇄방식에 의해 제조하였는데 이로써 1962년 통화개혁으로 발행된 영국제조권 6 개권 중중 주화로 대체된 5원권 및 1원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제조권으로 대체되었다.



다 백원권 1965. 8. 14



나 오백원권 1966. 8. 16



나 오십원권 1969. 3. 21

## 고액은행권의 발행

1970연대에 들어서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거래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으로 고액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게 되자 10,000원권 및 5,000원권 고액은행권의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7월1일 오천원권이 발행되었으며 1973년6월12일 만원권을 발행하였다. 오천원권 및 만원권은 최고액권이던 500원권에 비하여 액면이 크게 높아지고 위조방지와 은행권 품질향상을 위하여 한국은행권으로서는 최초로 오천원권은 앞면도안과 같은 율곡 이이의 초상은화(隱畫)를 만원권은 석굴암 보살상은화(隱畫)를 각각 앞면 좌단에 삽입하였다. 1973년9월1일 새로운 도안의 다 오백원권을 발행하였는데 다 오백원권은 종전 나 오백원권의 전면이 흑색계통으로 되어 있어 사진복사 위변조가 비교적 용이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색상을 가급적 다색도로 하는 한편 「한국은행」 문자를 부정위치는화로 투입하였다.



가 오천원권 1972. 7. 1



가 만원권 1973. 6. 12



다 오백원권 1973. 9. 1

## 표준영정의 은행권 발행

한국은행은 고액권 용지의 국산화와 표준영정 도안의 채택을 위하여 1977년 6월1일에 나 오천원권 1979년6월15일에 나 만원권을 각각 발행하였다. 종래의 가 오천원권 및 가 만원권 등 고액권은 영국산 수입용지를 사용하였으나 은화용지의 국내생산이 가능하게됨에 따라 은행권용지를 국산화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도안의 표준영정 채택을 추진하였다. 표준영정 문제는 선현의 동상이나 영정을 제작함에 있어 제작처에 따라 그 모습이 상이하게 되어 물의를 빚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영정제작 시에는 정부의 사전 심의조정을 받아 제작하도록 하였다. 화폐도안에 사용된 선현의 초상 중 다 오백원권 및 천원권의 도안은 정부의 심의를 거쳐 제작한 것이었으나 가 오천원권 및 가 만원권의 경우 표준영정 심의이전에 이미 제작되어 이의 표준영정 대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가 천원권 1975. 8. 14



나 오천원권 1977. 6. 1



나 만원권 1979. 6. 15

## 화폐체계의 정비

한국은행은 정부의 승인하에 1982년 1월 화폐체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현용화폐의 규격과 도안을 전면적으로 조정한 새로운 은행권 및 주화를 발행하였다. 향후, 현금자동인출기, 자동정사기 등 자동화에 대비하여 위·변조화폐 감별을 위한 특수화학, 기계감응요소를 강화하고 특히 액면을 표시하는 점자를 첨가하여 맹인의 권중구분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인쇄 적합도등 지질향상을 도모하고 용지의 강도를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화폐의 품질을 높였다. 주화에 있어서는 500원 은행권을 대체하여 500원화를 발행함으로써 자동 판매기 보급등에 따른 고액주화 수요에 부응하여 현재 화종별로 다소 불일치 되어있는 문자 및 숫자의 배열 등 주화 도안의 통일성을 도모하였다.



나 천원권 1983. 6. 11



다 오천원권 1983. 6. 11



다 만원권 1983. 10. 8

## 첨단 위조방지 장치가 적용된 새 은행권 발행

컴퓨터 관련기기의 성능향상으로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정교해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홀로그램, 색변환잉크, 요판잠상 등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대폭 확대하고 디자인면에서도 예술적 세련미의 문자와 숫자, 총재적인, 점자 등 전체 도안 체계가 현대적 감각으로 대폭 바뀌었다. 은행권의 크기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되어 쓰기에 편리해졌으며 소재면에 있어서는 초상 인물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여타 소재는 과학, 미술, 사상 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소재가 채택되고 참신한 바탕무늬가 사용되는 등 도안 이미지가 복합화 되었다. ‘마’ 5,000원권은 2006년1월2일 발행하였으며, ‘바’ 10,000원권 및 ‘다’ 1,000원권은 2007년1월22일에 발행, 50,000원권은 2009년6월23일 발행하였다.



다 천원권 2007. 1. 22



마 오천원권 2006. 1. 2



바 만원권 2007. 1. 22



오만원권 2009. 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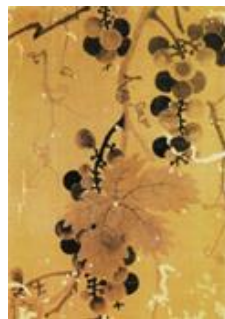
## 7. 지폐와 우리문화

### 지폐 속의 역사와 문화

은행권의 디자인은 주제, 색상, 문양으로 구성되며 문화와 전통 등 국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도안으로 디자인되므로 화폐는 곧 그 나라의 얼굴이고, 국민정서의 표상이며, 문화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다.

#### 오만원권

신사임당, 목포도도, 초충도수병(가지그림), 월매도, 풍죽도



목포도도



초충도수병(가지그림)



월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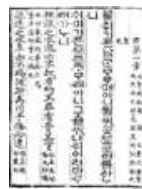
풍죽도

## ‘바’ 만원권

세종대왕, 일월오봉도, 용비어천가, 혼천의(渾天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地圖), 천체망원경(보현산천문대)



일월오봉도



용비어천가(제2장)



혼천의(혼천시계)



## ‘마’ 오천원권

이이, 오죽헌과 오죽, 초충도



오죽헌과 오죽



초충도

## ‘다’ 천원권

이황, 명륜당(明倫堂)과 매화,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



명륜당(明倫堂)과 매화



계상정거도(溪上靜居圖)

## 8. 은행권은 어떻게 만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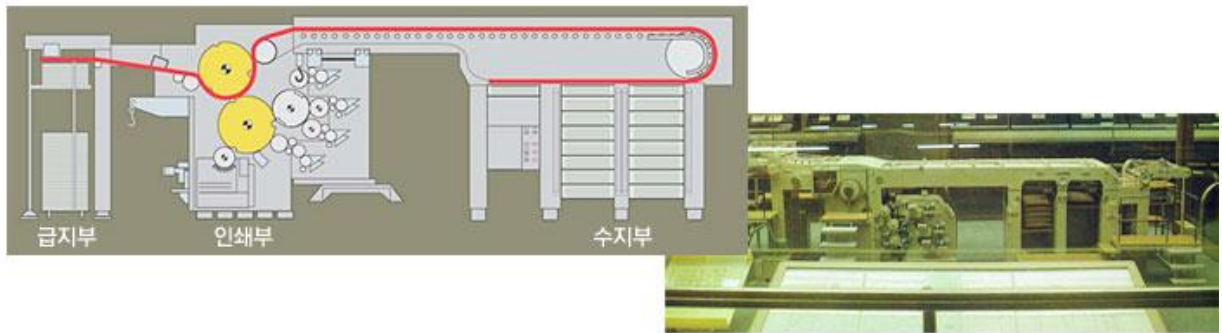
은행권 제조 공정은 크게 인쇄판 제작, 잉크제조, 제품 제조로 구분되며 각 공정별로 특수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에 각종 위조방지요소를 부여하게 된다. 나라 경제 흐름의 중요한 매개체인 은행권의 제조는 인쇄에서 검사, 완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철저한 보안과 품질 및 계수 확인 하에 이루어진다.

### 은행권 공정도

1. 디자인: 아름답고 정교한 디자인
2. 용지/잉크/인쇄판: 용지와 인쇄판, 잉크를 만들
3. 바탕 그림을 인쇄: 바탕 그림을 찍는다
4. 홀로그램과 색이 변하는 잉크: 반짝이는 홀로그램과 색이 변하는 잉크를 찍는다
5. 돈움그림인쇄: 인물과 글자 부분의 돈움 그림을 찍는다
6. 검사하기: 자동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검사
7. 자동으로 자르고 포장: 숫자를 세고, 자르고 포장



## 9. 요판인쇄기



은행권 및 유가증권의 특수 문자나 문양을 凹판으로 인쇄하는 기계로 최대 능력은 매 시간 당 전지 60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기계이며, 1975년 1월 독일에서 도입한 것이다.



## 10. 북한의 지폐

북한 화폐의 단위는 ‘원’과 보조단위인 ‘전’(1원=100전)이다. 북한은 1940년, 1959년, 1969년, 1992년에 이어 2009년 다섯 번째의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때 새롭게 발행된 화폐는 5000원, 2000원, 1000원, 500원, 2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지폐와 1원, 50전, 10전, 5전, 1전 동전이다. 신. 구권 화폐의 교환비율은 100대 1이고, 저금소(은행)에 저축되어 있는 돈은 10대 1의 비율로 교환해 주었다.



### 북한화폐의 특징

북한은행권은 국가 휘장이나 정치 지도자, 노동자, 농민 등을 화폐의 도안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색상이 권종마다 다르고 요판인쇄를 하고 있으며, 은화와 앞. 뒤맞춤인쇄, 미세문자, 요판잠상, 광가변잉크 등으로 위. 변조를 방지하고 있다.



# 11. 세계의 지폐이야기



## 도안소재 - 인물편

도안소재를 주로 인물초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인물에 대한 그 국가 국민들의 존경심도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인물초상의 경우 다른 도안소재에 비하여 미세한 변화도 국민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은행권 위·변조 방지에도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도안소재의 변화추세

과거 정치인이나 국왕의 비중은 감소하는 대신 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화가, 음악가, 건축가, 작가, 발명가 등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과거 남성들의 초상에서 여성들의 초상으로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은행권 도안 소재 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사항

### 기능적 측면

국민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소재인지 검토한다. 액면간 구분이 가능해야 한다. 위조식별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 사회적 측면

초상 등 소재가 국민정서에 맞는지를 검토한다.

### 예술적 측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밀한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 12. 은행권용지는 어떻게 만들까?

은행권 용지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지료조성과정, 초지공정, 검사, 포장공정으로 나뉜다. 은행권 용지의 원료는 '노일'이라는 면섬유로 '노일'이란 방직공장의 최종 공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면섬유를 말하며 목재펄프에 비해 재질이 우수하여 은행권 용지제조에 사용된다.



### 용지 제조 공정

1. 화폐원료는 목화섬유로 제조합니다.
2. 목화섬유에 있는 불순물을 화학적으로 제거합니다.
3. 종이 제조에 적합하게 섬유를 자릅니다.
4. 포머와 환망 초지기로 습지를 제조합니다. 여기에서 은화와 은선이 삽입됩니다.
5. 제조된 습지에 있는 물을 제거하여 종이를 제조합니다.
6. 약품처리로 인하여 젖은 종이를 다시 건조합니다.
7. 종이 완성



# 13. 은행권용지

## 은행권용지의 숨은 기능

은행권 용지는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능성을 부여하여 제조된 종이로서 지료조성과정, 초지과정에서 색을 첨가하거나 은사·은선 및 은화 등을 삽입하여 위·변조방지기능을 부여한다.

## 제지제품

1957년 장망식 초지기를 도입하여 1959년부터 1970년까지는 댄디마크에 의하여 1971년부터 1982년까지는 프레스마크에 의한 은화삽입방법으로 은화 삽입용지를 생산하였다.

1983년 국제경향에 따라 최신 환망식초지기를 도입하면서 워터마크(Water mark)를 삽입한 용지를 생산하여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품위 높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은행권용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오만원권, 만원권, 오천원권, 천원권의 은행권 용지로서 인쇄적성(適性) 및 제지조건을 감안 정위치에 은화를 삽입한 유색지(有色紙)이며 형광(螢光)은사(隱絲)를 혼입(混入)한 용지이다.



오만원 은화



만원권 은화



오천원권 은화



천원권 은화

---

## 은화기법의 변천

은행권이나 특수인쇄물을 제조할 때에는 보통 위·변조 방지장치를 사용하게 된다. 용지제조시의 방법으로서는 특수물질을 첨가하거나, 은선·은사 및 은화 등을 삽입하는데 그 중 은화 삽입방법의 변천을 보면 초창기 상이 압사된 망(網)에 지료(紙料)를 부어 떠내는 방법에서 댄디마크롤에 의한 방법, 프레스마크롤에 의한 방법, 워터마크에 의한방법으로 발전하였다.



---

## 환망롤

은화(Watermark)제조공정에 따라 제조된 금망(金網)을 환망(丸網)으로 부착한 상태의 실험물이다. 실제 제품 생산시의 환망롤은 지료조성(紙料造成), 건조, 인쇄적성(適性)등의 조건을 감안 정위치에 면부수(面部數)대로 조립한 상태이다.



## 은화(Water Mark) 제조 공정

원도(原圖)에 따라 숙련된 조각사(彫刻士)가 은화조각을 하면 그 은화조각 판으로 압사금형(壓寫金型)을 만들고 이를 금망(金網)에 압사하여 환망(丸網)실린더에 거치하여 피복(被覆)한 다음 초지기(抄紙機)에서 은화가 들어 있는 종이를 만든다.



1.원화



2.조각판



3.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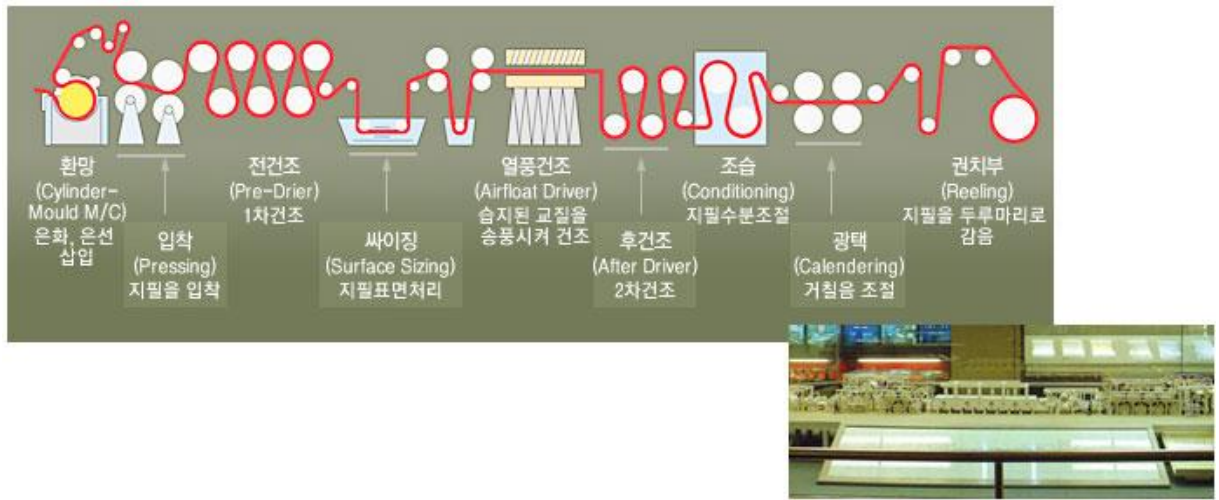
4.금망



5.은화



## 14. 초지기



초지기는 은행권 및 유가증권 용지를 제조하는 기계이다. 최대능력은 은행권 용지를 기준으로 하루에 5톤을 제조할 수 있는 기계이며, 1983년 1월 독일에서 도입한 환망식 초지기이다.